

21세기 대학 패러다임의 변화



이 현 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와 교육이동의 사회, 가상학습 사회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이다. 이러한 대학교육 여건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신세기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형 대학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그리고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지식집적화로 특징지어지는 지식정보 사회이다. 따라서 모든 삶의 형태와 활동이 지식이라는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경제도 지식기반경제의 특성을 띠게 되고, 인력도 지식형인력(knowledge oriented manpower)을 필요로 하게 되며 교육 또한 지식창출체제의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기반사회는 지식경영이 매우 중요시됨으로써 교육시스템과 교육의 기능 역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체제와 체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 21세기 교육발전 전략으로서

가장 중요시되는 과제는 지식기반 사회구축과 지식의 창출 그리고 응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흔히 21세기는 '3K 사회'라 볼 수 있는 지식 미디어, 지식 네트워크, 그리고 지식 인 큐베이터로 집약될 수 있고¹⁾, 교육의 기능과 역할 또한 '新 3R'로 대변되는 적시성(right time), 적절한 내용(right contents), 올바른 배출(right placement)을 수행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된다.²⁾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모든 국가로 하여금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여 사회와 국가를 가장 효율적인 '지식의 웹(knowledge web)'으로 구축하는 데 정성을 쏟도록 하고

- 1) Hyun Chong Lee, 'The New era of Televersity and Andravarsity in the Campusless Society : Virtual university and its implication in Korea', Europea Academia conference, Sweden, 1999.
- 2) Hyun Chong Lee, et al.(2001) Virtual University? Educational Enviornments of the Future. London : Portland Press.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두뇌강국'과 '지식강국' 그리고 '창의형 교육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어 지식기반사회의 특성에 맞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다.

기본적으로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국가발전 전략의 큰 틀은 사회와 국가 전체의 구도 속에서 자리 매김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여러 사회기관 중에서도 지식창출과 응용 그리고 재생산을 그 역할로 하는 교육체제의 경쟁력 제고가 우선이 되어야 함은 여론의 여지가 없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지식기반사회에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온 정열을 쏟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70년대 말 이래 4번의 교육개혁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 중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학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들은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해답을 찾고 있으며, 그 해답의 하나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적 과제는 지식을 창출하고 응용하며 이러한 지식을 재구조화하는 지식의 생산구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일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강국을 위한 기본 여건과 활용체제를 위한 패러다임의 설정과 지식유통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연계체제가 그 과제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대학개혁 방안은 지식의 창출과 재생산 구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대학들은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사회의 특성 여하에 따라 나름대로의 문제점과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현재는 일부 선진국이 80년대에 경험했던 위기요인에 의한 대학위기를 맞고 있다. 서구사회에서 80년대의 대학 생존 전략을 3R 즉, 감축, 재배분 그리고 긴축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오늘날 우리 대학에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3R이라 할 수 있다³⁾. 더구나 대학은 거듭나기를 필요로 하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이 수렴해야할 전략도 우리나라 대학들의 현재 모습을 변화시켜야 함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21세기 미래의 고등교육체제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변화에 따라 그 구조와 운영 면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수렴하여 재구조화해야 하는 수렴체제이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 자기발전과 생존을 추구해야만 하는 자구체제적 특성을 갖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21세기 체제는 시대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열린 고등교육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체제적 변화들은 다음 몇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다학문적 접근에 의한 기존의 학과나 전공개념의 퇴조 그리고 복합적인 다학문적 체제로의 재구조화가 확대될 것이다.

3) 이현청, 『21세기와 함께 하는 대학』, 서울: 민음사, 2000: 44-45.

둘째, 학계, 학제, 학교 간 이동이 자유롭고 보편화되어 학제·학교 간 이동이 원활한 열린 학사체제의 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교수방법에 있어서도 개인학습방법과 다매체적 방법이 확대되어 자격증 중심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탈캠퍼스적인 '재택대학체제'나 국가 간 지역 간 '연합대학체제'의 특성이 지배적일 것이다. 결국 '즉시성 교육'과 '초국적 교육'도 확대될 것이다.

넷째, 미래의 고등교육체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수요와 공급의 역동성이 될 것이다. 특히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국적 관점을 탈피한 21세기의 고등교육체제는 무전공, 무학년, 무국적, 무필수전공 등의 다양한 요소가 가미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대학입학 제도면에서도 다양화가 확대될 것이고 학생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생선발제도의 특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일류지향적 지원경향은 해소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향의 하나이지만, 외국대학들과의 연계와 공동학위 프로그램의 확대, 그리고 특성화중심의 특화대학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일류대학의 개념은 상당부분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커리큘럼 운영 면에서도 다학문적 접근과 다전공적 접근이 이루어짐으로서 학과

의 특성이 희석될 것으로 예견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과 기업체, 연구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간의 협력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지역대학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평생고등교육체제의 확대는 고등교육인구의 특성에 변화를 가져와 고연령, 시간제 학생 등의 증가를 가져와 시간제 학점당 등록제도의 촉진과 함께 학점은행과 자격증 중심체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21세기의 대학체제의 변화는 소비자중심, 수요중심 교육으로 방향이 전환될 것이며, 평생교육체제와 무제도적 특성이 강화되는 '신대학체제(新大學體制)'가 정착될 것이다. 이때 중요시되는 점은 특성화, 다양화, 고객중심, 네트워크, 협력과 경쟁 그리고 질 관리체제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와 교육이 동시 사회, 가상학습 사회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이다. 이러한 대학교육 여건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신세기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대학의 기능과 역할도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서 새로운 세기에 걸맞은 형으로의 재구조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대학질서와 구조가 현존하고 대학의 위상이 나름대로 정립되어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급격한 변화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나라 대

21세기의 대학 패러다임의 변화는 대학의 구조적 해체를 그 근간으로 할 것으로 예견된다. 21세기 고등교육정책 또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구성원들의 자세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단순히 근시안적 땀질식 구조개혁이 아니라 특성화 전략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 전반의 대개혁이 되어야 한다. 몇 개 특정대학의 '앞서가는 대학'의 개념을 뛰어 넘어 모두가 다르고 독특한 '유일한 대학'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들이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대학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큰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의 대학 패러다임의 변화는 대학의 구조적 해체를 그 근간으로 할 것으로 예견된다. 21세기 고등교육정책 또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구성원들의 자세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단순히 근시안적 뺨질식 구조개혁이 아니라 특성화 전략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 전반의 대개혁이 되어야 한다. 몇 개 특정대학의 '앞서가는 대학'의 개념을 뛰어 넘어 모두가 다르고 독특한 '유일한 대학'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점에서 경영혁신 전략은 ①전통과 혁신의 조화, ②특성화와 다양화의 조화, ③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간의 조화, ④내국적인 측면과 국제적 측면의 조화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개별 대학의 전략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기존 사고의 틀처럼 대학 전체 차원에서 연구중심이니 교육중심이니 등의 카네기재단의 분류도 감안되어야 하지만 학제,

학계 등을 과감히 재구조화하는 특성화, 차별화 등 적극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리나라 대학의 특성화를 전제로 국책형, 수익형, 전략형으로 재구조화하여 협력체제와 경쟁체제를 가미할 수도 있고 외국대학들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완전 자율화 개방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구조적 개편도 적극 검토될 시점이다. **대학교육**

이현청

한양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남일리노이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부산대학, 남일리노이대학,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UMAP(아·태 지역 고등교육협력기구) 의장, 세계대학협의회(IAU) Higher Education Policy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교육사회학』, 『21세기를 대비한 대학의 생존전략』, 『학습하는 사회』, 『21세기와 함께하는 대학』 외 다수가 있다.